

2020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3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6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무상급식 논쟁에 참여한 제시문 [마]의 참가자들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분류하고, 이들의 의견을 [가]~[라]의 제시문과 연결지어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논증하시오.

제시문

[가] 효율성은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을 말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의도한 효과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태 혹은 동일한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상태라 할 것이다.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 목표 중 하나이다.

반면, 공정성은 옳음과 그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에 비추어 판단되는 규범적 기준에 해당한다. '공정한 분배'란 바로 공정성 관점에서의 정의로운 분배를 일컫는다. 공정한 분배를 달성한다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와 달리, 공정성의 문제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재구성

[나] 공정한 분배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다. 이는 벤담(J. Bentham)의 유명한 경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이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영향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의 '쾌락' 또는 '행복'이 본래적 가치이자 선(virtue)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한다.

그런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분배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등한 분배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빌 게이츠에게서 100만 달러를 가져다 형편이 어려운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누어 준다면, 게이츠의 후생은 하락하겠지만, 돈은 받은 100명의 총 후생은 그보다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불균등한 분배의 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때도 있다. 소득세율의 인상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줄고 재분배할 양도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공리주의자들은 소득세 인상을 오히려 반대할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재구성

[다] 이와는 달리, 철학자 롤즈(J. Rawls)는 어떤 분배의 상태가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면서, 한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편이 '최소'인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시킨다고 하여 최소극대화(maximin)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롤즈의 이같은 주장은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원초적 상태란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가 어디가 될지를 모르는 가상의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이 부자가 될지 또는 가난한 자가 될지를 모르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는 사람들이 분배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에 대해 일종의 보험을 제공해 주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사람들이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롤즈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이클 샌델, 신현주,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재구성

[라] 앞선 두 가치판단 하에서는 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의 소득이란 당연히 재분배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최초 소득분배가 결정되는 과정의 정당성이나 소득재분배 시 사용되는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철학자 노직(R. Nozick)은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이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상태를 뜻한다.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다. 분배의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노직은 유형화된 정의론을 거부하고,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로운 사람이 자선의 행위로 타인을 돕는 것은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제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재구성

마이클 샌델, 신현주,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재구성

[마] 다음의 보기는 ‘무상급식’ 즉, 학교에서의 급식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일부이다.

< 논쟁 요지 >

김씨: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을 통해 결식아동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는 사회의 우선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씨: 자녀 양육은 사회가 아닌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박씨: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부모의 부담은 줄겠지만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납세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 조장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후생 차원에서의 손해가 크다.

최씨: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급식비 수금에 따른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이 줄고 결식아동의 건강도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혜택이 더 크다. 국민 후생의 측면에서 손해보다는 이득이 큰 정책이다.

정씨: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급식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 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급식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학생들 식단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다.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본 문항은 고등학교 <사회>, <생활과 윤리>, <경제>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공평성),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현실 세계의 실제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출제되었다.
- 본 문항은 다섯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설명한 뒤 공정한 분배에 있어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다음 세 제시문은 공정한 분배에 관한 세 가지 주요한 가치관을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제시문은 무상급식, 즉 학교에서의 급식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제도의 찬반 논쟁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수험생은 세 제시문에 등장하는 분배적 정의관을 정확히 숙지한 뒤, 무상급식 논쟁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주장에 대해 그 본질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발휘해야 한다.

2. 문항해설

본 문항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와 <생활과 윤리> 교과에 등장하는 효율성, 공정성, 공리주의, 롤즈의 정의론, 자유 지상주의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실제 사회 현안인 무상급식 논쟁을 파헤쳐 본다. 학생들이 논쟁 상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시문 [마]를 두어, 구체적인 논쟁의 예를 제시한다. 문제에서는 이 논쟁의 예시에 대해 제시문 [가]~[라]의 가치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도록 요구하며, 이를 토대를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길 권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에 등장하는 ‘효율성’ 개념을 설명한 뒤, 이와 함께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공정성’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효율성의 문제와 달리, 공정성의 문제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제시문 [나]~[라]에서 공정성에 관한 주요한 가치판단을 소개한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 및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등에 등장하는 공리주의, 롤즈의 정의론,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는 무상급식 논쟁 상의 여러 가능한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한다.

지문으로부터 유추 가능한 무상급식에 관한 찬성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 제도는 사회의 가장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2)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납세 의무를 진 일반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테지만, 학교 행정 상의 이점, 결식아동의 건강 증진, 학부모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관한 주요한 반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은 마땅히 각 학생의 부모 책임인 급식비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

고 정당한 소유는 침해 받는다. (2) 무상급식의 도입이 조세 저항과 사회적 갈등 등을 불러일으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3)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교의 급식 감독 소홀에 따른 식단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논쟁 참가자 주장 각각에 대해 [가]~[라]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히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며,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술의 채점 시 주요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주장들을 찬성(김씨, 최씨)과 반대 입장(이씨, 박씨, 정씨)으로 정확히 구분짓고 있나?
2. 김씨의 찬성 주장이 제시문 [다]에 소개된 롤즈의 정의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나?
3. 최씨의 찬성 주장이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나?
4. 이씨의 반대 주장이 제시문 [라]에 소개된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과 궤를 같이 함을 확인하였나?
5. 박씨의 반대 주장이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나?
6. 정씨의 반대 주장이 제시문 [가]에 소개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나?

또한, 이상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김씨와 최씨의 찬성 입장을 한 단락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씨, 박씨, 정씨의 주장을 또 다른 한 단락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사항]

본 문항의 정답의 서술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시문 [나]의 공리주의의 경우, 박씨와 최씨 모두 자기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은 특정 사안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가 혹은 감소시키는가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둘째, 정씨의 반대 주장은 ‘공정한 분배’ 개념 혹은 공정성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비용 대비 식단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은 공정성이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의 주장이다. 논쟁에 참여한 다른 이들의 주장과 맥락이 다른 주장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시답안

제시문 [마]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다섯 명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중 김씨, 최씨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이씨, 박씨, 정씨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찬성 의견을 낸 김씨는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가 사회의 우선적 책무임을 강조한다. 이는 제시문 [다]에 소개된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한 사회의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후생수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원칙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무상급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씨는 무상급식의 도입이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늘리지만, 학교의 행정 부담 감소 및 결식아동의 건강 증진 등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큰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무상급식의 도입이 사회의 총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와 최씨의 찬성 입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사회 전반의 후생 증진에 기반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씨는 마땅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를 일반 국민에게 과세의 형태로 전가시키는 행위의 부당함을 제기한다. 이는 제시문 [라]에 소개된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과 궤를 같이 한다.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씨는 무상급식의 도입이 납세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 차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는 최씨의 주장과 같이,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동일비용 대비 학생 식단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함으로서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제시문 [가]에 소개된 경제적 효율성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씨, 박씨, 정씨의 반대 입장은 자유 지상주의, 사회 전반의 후생 감소, 경제적 효율성 하락에 기반하고 있다.